

여성들이여! 일상에 시비돌려보자!!

● '1312' 3월 소식지 ●

'1312'는
여성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여성주의가 너무나 아름다워
도저히 잠을 수 없는
여성들끼리
몹가 신나는 일을 저지르고
싶어 모인 곳이다.

"여성문제라는 것들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인 가족관계, 성, 사랑, 직장 등에서 한 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늘 관심없다. 모른다는 변명으로 외면해 왔으며, 자신을 떳떳하게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기엔 주위의 눈총 또한 너무나 따가웠던 것이 사실이다.

여성문제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특수한 일도 아니며, 어느 한 영역의 목소리로 치부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사회, 문화, 정치 영역에 까지 동시에 기본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여성문화는 발견할 수 없었다.

'1312'는 가부장적 질서 속에 녹아있는 남성문화의 높은 벽을 허물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당연하다고 여겼던, 또는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에 시비걸기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질서와 언어로 대안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여성 자신의 몸과 언어, 행동에서부터 주인되기를 선언하고 가부장제 체계를 넘어서 새로운 여성연대의 물줄기를 띄워보고자 한다."

'1312' 식구 소개

▶ 랑네꼬(순영)

여성해방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녀에게서 (꼬)랑네가 났다.

▶ 앵프(춘화)

여성해방의 목소리를 방방곡곡에....

▶ 쭈리쭈리(승희)

POWER 마녀의 맛 좀 봐라!얏!!

▶ 떠리(우정어)

재빨리 떠리미로 해치워야 할

1호: 가부장제

▶ solo (명숙어)

무쏘의 빨처럼 혼자서 가리라!

▶ 행주(순화)

가부장제는 내 손으로 깨끗이 해치우리라!

▶ 뽕뽕이(선경)

X! 너는 내 뽕뽕이 망치 맛좀봐라!

▶ NRG(누렁지)(은성어)

여성해방의 구수한 향기를 그녀에게....

▶ 악녀(순애)

너희의 마지막 발악, 악녀로서 화답하리라!

▶ 페니(난희)

아이엠, 페미니스트! 페니스가 아니야!

▶ 못뎀년(민정)

자유를 위한 거부!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규정하는 여성의 모습을 거부하는 나는 못뎀년!

▶ 부터(경아)

처음부터의 그 '부터'입니다. 늘 새로운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그녀를 위해....

【광고 1】 미래의 여성동지를 살립니다.

● 특년의 부포타이소와
꺾임사업을 제안합니다. ●

부포타이소는 다른 타아소와는 달리
어떤 여성동지들이 많습니다.
한달에 5천원을 내시면 이 아이들이
한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점심공가를 통해
한달에 5천원씩
1년간 결연을 맺어 좋은 동포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참하실 분은 악녀에게 연락을.....

'1312' 활동보고

▶ 1월부터 '1312' 음모를 꾸몄고, 2월 말부터는 그 윤곽이 드러나면서 회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 악녀가 개인적으로나마 '지역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후원금도 내시고 매달 한 번 모이는 모임에 같이 갑시다.

▶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한 한국여성대회에 야강대 국문학과 여성문제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총여의 약간의 지원을 받아 다녀왔습니다.(서울가서 윤경이도 만났음.)

▶ 3월에 4번의 모임을 가졌으며, 각자의 새 이름을 정하고 이야기하면서 놀았음.

▶ 3월 29일에는 효가대 성정치위원회 사람들과 갯바위에 가서 여성해방을 위해 빌었습니다.

이제부터 대구경북지역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날 예정입니다. 같이 놀시다.

▶ 29일과 30일에는 악녀가 윤경이를 만나러 서울가서 잘 놀았고, '여성주의 문화모임 마녀'에서 발간한 '마녀'를 두 권 얻어왔습니다. 1312에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웃 자!

● 진짜 정치

어느날 어린 철수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정치가 뭐야?"

뜻밖의 질문을 받은 아버지가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했다.

"정치라는 것은 우리집으로 비유하자면 이렇단다. 돈을 벌어오는 아빠는 자본가, 그 돈으로 살림을 하는 엄마는 정부, 그리고 철수 너는 국민인 셈이지" 철수는 다시 물었다.

"그럼 내 동생은?"

"네 동생은 앞으로 자라날 우리의 미래지."

"그럼 가정부 누나는?"

"가정부? 가정부 누나는 자본가인 아빠의 돈을 받으니까 노동자인 셈이지."

그날밤

곤하게 잠을 자던 철수는 느닷없는 울음소리에 잠이 깼다. 아직 간난야기인 철민이가 똥을 싸는 것이다. 철수로서는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엄마를 부르려고 안방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엄마는 깊은 잠에 빠져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정부 누나 방으로 갔다. 이상하게 방문이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 보니, 아뿔싸 그 방에서는 아빠와 가정부가 한창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튿날 아침.

아버지와 나란히 식탁에 마주 앉은 철수는 말했다.

"아빠 어젯밤 진짜 정치란 게 뭔지 배웠어요."

아버지가 신통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래? 그럼 진짜 정치란 게 뭐니?"

철수가 말했다..

"진짜 정치란 국민이 도움을 청해도 묵살해버리는 정부. 노동자를 강간하는 자본가. 똥 위에서 똥굴고 있는 우리의 미래요."

● '1312'는 ... ●

▶ 다음달 모임은 수요일 6시, 금요일 11시, 6시 그리고 토요일은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모임입니다.

▶ 수요일은 토론하는 날, 금요일 11시도 토론하는날, 금요일 6시는 놀거나 비디오 보는 날, 토요일은 소풍, 비디오, 만화 보기 등 문화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 4월 둘째주 수요일(8일)은 떠러가 이야기 개러를 준비해 온답니다. 많이 많이 와서 수다를 떨어 봅시다.

'1312'가 추천하는 책

▶ 「나도 한때는 자작나무를 탔다」

(김연 지음/ 한겨레 신문사)

→ 이기적인 운동권 남성에게서 또 다른 억압을 경험한 주인공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모성을 통해 여성성을 깨달아 간다는 이야기. 하지만 모성만이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주리란 성급한 결론을 경계해야...

▶ 「한국에 페미니스트는 있는가?」

(류숙렬 외/ 삼인)

→ 차세대 페미니스트 가운데 조혜정, 공지영, 이계경, 이미경, 김소영, 유지나, 오숙희, 최윤을 선정 해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지형으로 나타나는지 젊은 비평가를 통해 그려낸다.

▶ 「마요네즈」(전혜성 지음/문학동네)

→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느낀 모성본능에 대해 새로운 문제제기를 던집니다.

「마요네즈」는 극장 마녀에서 4/1 - 5/24일까지 연극으로 올려드립니다. (이프 범호에 30%할인권이 있습니다.)

▶ 「버디」 -> 동성애자들을 위한 동성애자들에 의한 동성애 잡지가 이제 서점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짝친구, 동료라는 의미인 BUDDY가 나옵니다. 「버디」는 재미있고 대중적인 잡지이며, 여성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거리도 있다.

▶ 「 IF 」

→ 이제 우리에게는 친숙하겠지만, 더욱 가까이... 총여에서 봄호를 1500이나 싸게 판답니다.

연대 파트너 동향

▶ 효가대 성정치 위원회(짱; 정현운)와의 두 번째 만남 이후로 대경 전역의 동지들을 모아 하나의 모임으로 정착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경여대협이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힘이 되어줄수 있는 연대의 모임입니다. 다음 모임이 잡히면 공고하께요.

▶ 경주지역에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 편견을 죽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학교 국문과 콩알(이수현)도 함께 합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자료와 이야기꺼리들을 전해받고 있습니다. 4월엔 꼭 같이 한 번 만납시다.

▶ 연대 총여에서 4월에 여성영화제와 여성주의 한마당을 한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많으니가 참가해서 얻어 갑시다.

● 빈 공간 활용 ●

▶ '1312'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악녀(순애)에게 연락주세요.
연락처: 015-759-3567

▶ '1312' 방은 학생회관 2층 왼쪽 첫 방(총여 옆방)입니다.

광고 2 - '1312' 회원 모집 및 회비를 받을까 합니다.

'1312'는 일상에 시비걸기를 하는 모임입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해버리는

일상생활 속의 여성문제들을

꼬집어 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꾸준히

진행할 겁니다.

가부장제 속에서 억압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참, 회원은 한달에 3,000회비를

내주시면 감사하구요.

후원회비를 내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받습니다.

모두에게 소식지를 드립니다.